

“뭘든 한번 하면 빠져들어요”

한보름, 종영 '레벨업' 서 게임 덕후 신연화 열연
로맨틱 코미디 첫 주연... “전문직 연기 해보고 싶어”



“게임 덕후(한 분야에 몰두하는 사람) 역할로 나와서 스마트폰에 게임을 깔아서 해봤어요. 그걸 아직도 하고 있어요. 뭘든 한번 하면 빠져들거든요.”

최근 종영한 MBN 수목극 '레벨업'에서 게임 덕후 신연화 역할을 연기한 한보름(본명 김보름·32)을 20일 서초구 반포동 한 카페에서 만났다. 극중 신연화는 게임 회사 직원에서 팀장으로, 그리고 대표이사까지 올라갔다.

한보름은 “대표가 되고, 결말에 사랑까지 이루어지는 스토리에 감사했다”며 연화의 성장 비결은 ‘자신감’이라고 꼽았다.

2011년 KBS 2TV 드라마 ‘드림하이’로 데뷔해 ‘결정적 한방’ 등 영화와 ‘주군의 태양’, ‘고백부부’,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등 다양한 드라마 출연한 한보름은 이번 드라마에서 로맨틱 코미디로 첫 주연에 나섰다.

“주연인데 제가 에너지가 떨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날엔 체력을 만들려고 무조건 운동을

하러 갔어요. 체력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됐죠.”

한보름은 “연화의 열정 부자 같은 면은 실제 나와 닮았다”면서 “실뻐해도 괜찮다, 잘할 때까지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다”고 한다.

“배우가 되기 전 아이돌 데뷔가 두 차례 좌절된 적이 있어요. 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며 부족한 점을 채우기로 했죠. 유기견 봉사를 다니며 탄 애견미용사 자격증부터 바리스타 자격증, 스킨스쿠버 자격증, 제스댄스 강사 자격증까지 갖고 있어요.”

한보름은 이번 작품을 하면서 “게임회사 사다 보니까 회의할 때 쓰는 게임용어가 어려웠다”면서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연기는 더 어려울 것 같다. 전문직 연기에도 도전해보고 싶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작품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성훈에 대해서는 “예능 ‘나 혼자 산다’에 나온 모습보다 실제로 더 인간적이다”며

“감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맞춰주신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보름은 “이 작품에서 한 단계 ‘레벨업’ 했고, 앞으로도 한 계단씩 ‘레벨업’ 하고 싶다”고 한다.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일하다가 힘든데도 저를 보면 힘이 난다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묘해요. 외면이 화려한 사람보다는 누군가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연합뉴스

영화 007 25번째 시리즈 ‘노 타임 투 다이’ 내년 개봉

제임스 본드 역에 다니엘 크레이그...라미 말렉도 출연

첩보 스파이더 007 제임스 본드 25번째 시리즈의 제목이 ‘노 타임 투 다이’(No time to die)로 정해졌다고 CNN엔터테인먼트와 할리우드 매체 데드라인이 20일(현지시간) 전했다.

제작배급사 MGM은 내년 4월 3일 영국, 4월 8일 미국 스크린에서 개봉한다고 밝혔다.

미국 내 배급은 유나이티드 아티스츠, 해외 배급은 유니버설 픽처스 인터내셔널이 각각 맡았다.

새 시리즈에서도 본드 역은 다니엘 크레이그가 맡는다.

크레이그는 지난 5월 자메이카 로케이션 촬영 도중 발목 부상을 당해 재활과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다. 파인우드 스튜디오

오 폭발 사고 등 영화 촬영 과정에서 약재도 많았다.

영화는 본드 역의 크레이그가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 친구 펠릭스 레이터와 자메이카에서 휴식을 즐기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어 납치된 과학자를 구출하라는 특명이 내려지고 베일에 싸인 악당 역의 라미 말렉과 대적한다.

‘보헤미안 랍소디’에서 인상적인 열연을 펼친 말렉은 007 시리즈에 처음 선보인다. 메가폰은 캐리 후쿠나가 감독이 잡았다.

/연합뉴스

구혜선 “이혼 협의는 했으나 합의한 적 없어” 강조

배우 안재현(32)과 결혼 3년 만에 파경 위기에 처한 구혜선(35) 측이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고, 상대와 합의한 적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혜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20일 입장을 내고 “구혜선씨는 안재현씨와 이혼에 ‘협의’ 한 바는 있으나, 이혼에 ‘합의’ 한 적은 없으며 혼인 파탄에 관한 귀책 사유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이혼 합의서 초안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했으나, 날인이나 서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구혜선 측은 또 합의 이혼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던 데 대해서는 “안재현 씨가 결혼 권태감으로 인한 신뢰 훼손과 변심, 주위 상태에서 다수 여성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을 한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그랬다”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은 “그러나 구혜선 씨 여

니의 정신적 충격과 건강 악화, 기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혼에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구혜선 씨 본인이 이미 SNS(소셜 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밝혔다”며 “현재도 이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구혜선 측은 이혼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부부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소속 연예인의 생활에 일방적으로 관여하면서 신뢰를 깨뜨렸으므로 더 함게할 수 없다. 조속히 전속계약 관계가 원만하게 종료될 것”이라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구혜선 씨의 소속사가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구혜선 측은 마지막으로 “사적인 일이 공론화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된 점에 대해 송구하며, 앞으로 잘 헤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2015년 KBS 2TV 드라마 ‘블러드’에서 호흡을 맞춘 인연으로 교제했으며 이듬해 5월 결혼했다. 그러나 최근 관계가 악화하며 이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큰 입장 차이를 보이며 극심한 갈등을 노출했다. /연합뉴스

‘위대한 쇼’ 송승헌 “가볍게 힘 뻗 연기 보여드릴 것”

tvN 드라마 26일 첫 방송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인간도 아니다.”

정지판에서 유명한 이 말에 따라 tvN 새 월화드라마 ‘위대한 쇼’의 주인공 위대한(송승헌 분)은 인간도 아니다. 청년 비례대표로 30대 초반의 나이에 국회 입성에 성공했지만, 4년 후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푹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 대환에게 기회가 온다. 18세 여고생 한다정(노정의)이 자신의 딸이라며 나타난 것.

부상에는 하나도 없지만 금배지를 되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대환은 고아가 된 다정 등 사남매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수신제가치국평천하’(몸을 닦고 집을 안정시킨 후 나라를 다스리며 천하를 평정함) 중 가장 어려운 게 계가라는데...

줄거리에서 알 수 있듯 이 작품은 전작 ‘60일, 지정생존자’처럼 정치를 테마로 하지만 가볍게 힘 뻗 코믹 소동극이다.

송승헌은 21일 제작발표회에서 자신의 데뷔작인 코믹 시트콤 ‘남자 셋 여

자 셋’ 이야기를 꺼내며 코믹 연기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옛그제 같은데 ‘남자 셋 여자 셋’ 작품을 한 지 꽤 됐다. 그때 연기가 뭔지 모르고 준비도 안 됐다. 순수했지 만, 연기를 가장 못 했던 때”라면서도 “그 작품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나의 무겁고 진중한 이미지에 대해 고민했다. ‘블랙’, ‘플레이어’ 등과 달리 이번에는 풀이진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지인 역할이지만 무겁지 않은, 가볍게 힘 뻗 연기를 했다. 현장 갈 때마다 즐겁게 하고 있다”라며 “20대

에 이런 느낌을 받았으면 좀 더 연기 잘 한다는 얘길 듣지 않았을 게 싫기도 하다”라고 웃었다.

송승헌과 노정의 외에 이선빈, 임주환 등도 출연한다. 극본은 ‘광고천재 이태백’, ‘타짜’, ‘불량주부’ 등의 설준석 작가가, 연출은 신용휘 PD가 맡았다.

이 작품은 당초 ‘유령을 잡아라’ 후속으로 방송할 예정이었으나, ‘유령을 잡아라’ 후반부 작업 관계로 먼저 편성됐다. ‘위대한 쇼’는 100% 사전 제작됐다.

오는 26일 오후 9시 30분 첫 방송. /연합뉴스

오늘의 TV					
	KBS1	KBS2	MBC	KBC-SBS	E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00 모닝와이드	00 한국기행(재) 20 세계테마기행
7	50 인간극장		50 모두 다 쿵따리(재)	35 KBC 모닝 730	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30 뽀로로와 노래해요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평화의 물결, 광주를 넘어 스페셜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00 당동생 유치원 10 뫼지 뮤지박스 45 라떼키즈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00 마자와 곰 40 다문화 고부 열전(재)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신입사관 구해령(재)	10 SBS 뉴스 30 열린 TV 시청자 세상 30 고향이 보인다	30 한국기행(재) 50 최고의 요리비결 20 세계테마기행(재)
11	00 동행(재) 55 나의 독립 영웅(재)	00 저스티스(재)			
12	00 KBS 뉴스12	10 태양의 계절(재)	00 12 MBC 뉴스 25 우리동네 피터팬 22 꾸러기 식자교실 55 2시 뉴스 외전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닥터 365	00 EBS 정오뉴스 10 아시아의 오늘-마더 35 마이 리틀 탕시슈즈
1	00 사랑의 가족 50 꼬마여사 콩도령 2			00 뉴스브리핑	30 띠띠뽀 띠띠뽀 45 꼬마하어로 슈퍼잭
2	20 시노스톤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0 탐영 구조대 30 뽀로로와 노래해요 45 꼬마하어로 슈퍼잭
3	00 TV쇼 진품명품(재)	0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2019 MBC배 대학농구 결승전		00 네오세모(재) 55 닥터 365
4	00 사사건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15 피피루 안전특공대 40 뫼지 뮤지박스(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또봇 V 15 핑크퐁 원더스타 30 주간연예수첩	25 황금정원	00 SBS 오뉴스 40 KBC 저녁뉴스	00 EBS 뉴스 20 달팽이 30 페파 피그(재)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정글의 법칙(재)	00 특!독! 보니 하니 25 미니특공대 X 45 자이언트 팽TV
7	00 KBS 뉴스 7 40 한국인의 밥상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TV블로그 폼지락	00 레이디마그 30 생방송 만다다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보24 55 제보자들	55 신입사관 구해령	00 SBS 8 뉴스 35 KBC 8뉴스 55 세상에 이런일이	00 갤럭시 프로젝트 30 아기 동물 귀여워 40 세계테마기행 30 한국기행 50 야생동물병원 24시
9	00 KBS 뉴스 9				
10	00 KBS 스페셜 55 오늘밤 김제동	00 저스티스	05 공부가 머니?	00 닥터 탐정	
11	35 슈퍼 40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35 색션 TV 연예통신	10 접속! 무비월드	00 페스티벌 뉴스-군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재)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스포츠 다이어리 50 문화사색	20 나이트라인	35 아프리카의 부처

오늘의 운세 김도환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8월 22일 (음력 7월 22일)

	48년생 한 번 실수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다. 60년생 도전하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72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다. 84년생 추진하던 일에서 결실을 본다.		42년생 모든 일에는 정해진 순서와 절차가 있다. 54년생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라. 66년생 허세를 부리면 손해를 보겠다. 78년생 인생사 모두 일장춘몽이다.
	49년생 자신감이 넘치고 힘이 솟는다. 61년생 풍족한 후원을 받고 능력을 펼친다. 73년생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이다. 85년생 동분서주하는 바쁜 날이다.		43년생 연이어 경쟁자들을 물리친다. 55년생 행운이 가득한 날이다. 67년생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말라. 79년생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이 필요하다.
	50년생 양지가 읊지 된다. 62년생 최선을 다한 후 결과는 하늘에 맡겨라. 74년생 합리적인 선택이 요구된다. 86년생 기대하지도 않았던 월척을 낚는다.		44년생 원하는 것을 얻는다. 56년생 복덩이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온다. 68년생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얻는다. 80년생 운명적인 사람이라면 피하지 말라.
	51년생 편안하고 행복한 날이다. 63년생 마음을 굳게 쓰면 복을 받는다. 75년생 친구에게 실망할 수 있다. 87년생 훌륭한 언행으로 동료의 사랑을 받는다.		45년생 명예와 재물을 한꺼번에 얻는다. 57년생 내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승부를 걸어야. 69년생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81년생 신중한 언행이 요구된다.
	52년생 현실을 직시하고 냉정해져라. 64년생 자신 있게 추진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76년생 수고만 많고 소득은 전혀 없다. 88년생 남도 보고 뽕도 탄다.		46년생 금전문제로 고민한다. 58년생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70년생 포기하지만 않으면 기회는 반드시 있다. 82년생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41년생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 사방이 번다. 53년생 앞날이 캄캄하고 걱정이 많다. 65년생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 77년생 덕을 쌓으면 복이 찾아온다.		47년생 모두가 화합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 59년생 모처럼 일신이 편안하다. 71년생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이다. 83년생 멋진 인연을 만난다.